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6년 12월 1일 (목) 제 757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원)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김성제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하나님

<마태복음1:18~25/누가복음 2:1~14>



이명신 목사 (야아가타 우리교회)

크리스마스가 도래하면 어린시절의 기대감과 즐거움이 되 살아난다. 성극과 캐롤을 부르며 기쁨을 나누고, 친구들과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새벽송을 부르며 그 추운 거리를 다녔던 기억은 언제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가 전해주고 있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요셉은 결혼하기 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조용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 이라 부를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 라고 지었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의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예수가 이 땅에 보내어진 것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가 이땅에 오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임마누엘은 이루어진다.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탄생과 죽음으로 끝이난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 이전에 동정녀 탄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능력이다. 탄생과 죽음으로 계속되는 모든 인간은 예수의 전체 안에 포함된다. 다시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대해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서는 일언반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신비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누가는 크리스마스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요셉은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고향에 갔다. 그때 마리아는 첫 아들을 해산하여 구유에 눕혔놓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

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 목동들은 들판에서 지내며 어두운 밤에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 했다. 그러자 천사가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원주가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 율법이 극성을 부려 사람들은 고통스러웠고 세속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였다. 캄캄한 밤이었다. 그 때에 예수를 맞이한 이들은 목동들이었다. 당시에 목동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층민에 속했다. 낮에는 가축들을 피약별 아래에서 지켜야 했고, 밤이 되면 동굴이나 우리에 양들을 몰아 넣고 불침번을 서야 했다. 그들의 고충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그러한 목동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낮은 사람들이었기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구원주를 보내시면서 낮은자들을 택했던 것이다.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한다. 듣더라도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헤롯왕이 그랬다. 율법학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총각 요셉과 시골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다. 노동자들을 택했고, 동방박사들을 택했다. 우리도 겸손함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인 성탄이야기는 허름한 외양간에서 시작되었다. 그 외양간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곳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자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치료하고 회복시켰으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 가야 합니다. 임마누엘!



##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 개최 관서지방회 여성연합회 주제로 26번째



9월 11일(주일) 오사카교회에서 관서지방회여성연합회의 ‘제26회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이 13교회 34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부 개회예배는 관서지방회장 김중현목사의 <새노래로 노래하라>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그 후 계속해서 진행된 2부 찬양 페스티벌’은 13교회의 여성회 성가대가 주님의 영광을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체험을 하는 동안에 김필순 목사가 ‘미야기현 동북지방 재해’ 지역에서 봉사활동했던 체험을 영상과 더불어 보고하였다.

윤성택 심사위원장이 심사 총평을 하고 ‘페스티벌상’에 오사카교회, ‘찬양상’에 사카이교회, ‘말씀상’에 오사카제일교회를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각 출연교회에 상장과 참가상이 수여되었다.

(보고 : 조화자)

## 청년회 전국협의회 제54회 정기협의회 개최

청년회 전국협의회 제54회 정기협의회가 지난 2016년9월 18~19일에 걸쳐 요코하마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6명의 청년대표들이 모였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각 지방회 보고, 각부보고 및 총괄보고를 하면서 2015년도의 활동을 돌아보고, 달성한 일들, 개선해야 할 일들, 반성할 일들을 밤 늦게 까지 회의를 하였다.

19일에는 토의사항 검토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의견들을 나누었고 의논과 토의사항 후에는 2016년도 임원선출과 조직, 예산심의 를 하고 폐회예배를 가지고 제54회 정기 협의회를 종료하였다.

2016년도 조직은 다음과 같다.

代表 : 張晶洙(川崎教会)、副代表 : 中野晃徳(名古屋教会)  
 総務 : 吳眞雅(大阪教会)、書記 : 鈴木正皓(名古屋教会)  
 渉外部長 : 梁政宇(東京教会)、渉外部員 : 吉松律子(名古屋教会)  
 企画部長 : 申美華(大阪教会)  
 企画部員 : 趙実樹(川崎教会)・吉松律子、広報部長 : 趙実樹  
 広報部員 : 申美華・中野晃徳・文野直美(豊橋教会)  
 地方会振興部長 : 吳眞雅  
 地方会振興部員 : 鈴木正皓・趙実樹・中野晃徳  
 財政部長 : 李智熙(大阪北部教会)  
 財政部員 : 吳眞雅・文野直美・梁政宇

(보고 : 양정우)

## WCC “인종 문제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Racial Justice Solidarity)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하)

— 4월 19~27일 —

김 필 순 (부총회장 / 사카이교회)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흑인거주지역의 퍼거슨을 방문했다. 2년전 일본에서도 가끔 뉴스에 보도되었던 18세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관이 쏜 총에 숨을 거둔 지역이다. 9월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마이클은 8월 9일 거리를 거닐고 있던 중 그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질문을 받은 것이 언쟁이 된 듯 하다. 경찰측은 마이클이 총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살했다고 말하지만, 마이클이 양 손을 올린 채로 총을 맞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

이로 인해 마이클과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군대에서나 입는 위장복을 입고 전차와 기관총으로 증무장한 채 시위를 진압하고 다수의 젊은이들을 체포하는 사태가 매일 지속되었다.

여기서 교회의 대응은 둘로 갈라졌다. 흑인교회는 주민들과 더불어 항의에 나선 반면 백인 교회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였다. 데모는 점차 격렬해졌고 경찰 역시 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나타났다. 우리들은 마이클이 살해당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 다음날 그 지구에 있는 에덴신학교에서 지역 교회의 백인과 흑인 양측의 목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저항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대표들과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흑인 교회의 목사의 의견은, 교회는 바뀌지 않으면 안되며 더우기 인종차별은 경제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상응하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백인 교회의 목사들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이야기하였다. 일례를 들자면 어떤 신도가 교회의 현관 계단에서 울고 있었다. 거기서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묻자 그는 시위에 참가하는 흑인들이 교회에 있으니 이 교회는 이제 자신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목사들은 교파를 넘어서,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꾸준하게 대화를 지속하고 있었다.

세인트루이스의 다음으로 시카고로 향했다. 거기서는 가족들이 강제로 송환되어 흩어지고 만 히스패닉계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와 마찬가지로의 반이슬람 운동에 직면한 무슬림들을 만났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의 대통령으로 결정된 지금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슬픔이 점점 깊어지리라는 염려와 더불어 한편으로 무슬림들은 이 차별과 편견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 냉정한 태도는 분명히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마이너리티의 존재를 인지와 공감함과 동시에 연대하는 것이 커다란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방문이었다.





# 나가노교회 헌당식 거행 장로 장립식, 권사 취임식도 동시에



2016년10월10일, 나가노(長野)교회에서 헌당식 및 김진명(金珍明)장로 장립식, 장연옥(張年玉) 권사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최화식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헌당식에는 총회장 김성제목사가 <르호봇의 우물을 파는 교회>(창26:15-25)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나가노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에 현재의 교회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2015년에는 대대적인 수리공사를 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퍼 포괄종교법인을 취득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됨으로 영원의 헌당식을 은혜중에 거행하게 된 것이다.

계속되어진 김진명장로장립식은 중부지방회장 전병옥목사의 사식, 장옥연권사 취임식은 최화식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서약 및 선포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나고야교회 성가대를 비롯하여 중부지방회, 한국에서까지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여 권면 및 축사들을 맡아주었다.

장립받은 김진명 장로는 1961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나가노교회의 개척부터 섬겨왔으며 1994년 부터 집사, 2007년 부터 안수집사로서 섬겨왔다.

# 《여성부·장년부·청년부가공최로》 관서지방회 감사축제 개최

제7회 관서지방회 감사축제가 10월16일(주일) 오후에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여성부, 장년부, 청년부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방회 18개 교회에서 19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에는 각 교회 청년들의 신앙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신앙의 교류와 나눔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라는 주제를 정하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의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부 예배는 박홍순목사(오사카남부)의 ‘높은 산에 올라’ (마태복음17:1-8)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2부에는 6교회(히라도, 오사카북부, 오사카남부, 교토동산, 교토남부, 교토)의 청년회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청중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 후에 강사 사토미카 (佐藤美香) 선생이 가스펠에 대한 강연과 그와 관련된 간증을 하고 본인이 직접 작곡한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를 청중들과 함께 부르는 가운데, 청년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큰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을 드렸다. 그 모습을 본 참가자들은 감동과 더불어 희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었다.

제3부 교제에는 각 교회 여성회가 준비한 식사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각 교회의 청년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에 마음이 든든해졌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청년회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지기 위해서는 각 교회, 지방회, 총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들 또한 스스로 열심을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보고 : 관서지방회 청년부)



# 대만기독교장로교회(PCT) 와의 선교협의회 개최

지난 2016년10월27일~28일, 총회 회의실에서는 일본기독교단 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대만기독교장로교회(PCT) 대표를 맞이하여 1박2일 일정의 선교협의회를 가졌다.

PCT와는 1973년5월, 김득삼총회장, 이인하총무 때에 선교협약을 맺었으나 지금까지 별 다른 교류 없이 40년 넘게 지내왔다. 그러나 세계개혁교회공동체(WCRC)의 동북아시아부회(NEAAC) 활동을 통하여 다소 교류를 가져왔으며, 특히 지난 2015년11월의 제3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오는 등 적극적인 선교협력의 필요성을 가지게 됨으로 금번 협의회를 통하여 과거의 협약 정신을 살려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 가기로 하였다.

2015년에 선교 150주년을 맞이했던 PCT는 23개 노회와 1,277교회, 23만명의 신도로 구성돼 있다. 14개 원주민 종족의 복음화율은 75%에 이르고 타이페이의 복음화율은 11% ,대만 전체의 복음화율은 6%라고 한다.

금번 협의회에 PCT에서는 총회장 舒度大達(Sudo Tada)목사, 종간사 林芳仲(Lyim, Hong-Ting)목사, 기획국장 黃哲彦(Ng, Tiat-Gan)목사가 참석하였고, KCCJ에서는 총회장 김성제목사, 부



서기 김건목사, 선교위원장 정영원목사 및 김병호종간사가 참석하였으며 통역은 광경환목사와 曹鈴姬목사(高田馬場台湾教会)가 봉사했다.

# 소그룹 세미나 열어 UMC한인목회 강화협의회 초청

10월18일~20일까지 관동지방회 교육부와 교역자회 주관으로 WESLEY CENTER TOKYO에서 미국연합감리교회(UMC) 한인목회 강화협의회(총무 : 장학순목사) 협력으로 소그룹세미나를 가졌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이 모여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소그룹 리더세우기 교제로 알찬 시간을 가졌는데, 세미나의 내용으로는 이론적인 내용들 보다 강사들이 직접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겪은 목회적 경험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고 신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뇌들을 치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많은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역과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직접 소그룹을 인도해보는 경험도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동지역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참석할 만큼 소그룹목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UMC한인목회강화협의회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제공해주었으며, 강사로는 이성현목사, 이성호목사, 김한성목사, 장학순목사가 수고해 주었으며, 다음에는 이 세미나를 관서지방에서도 가질 계획과 함께 이미 한국어 및 영문으로 출판되어 있는 교제 ‘만나고 싶습니다’ 를 일본어 번역의 필요성도 절실히 가졌다. (보고:장경태목사)

## 일본기독교회 (日キ/CCJ) 와의 제16회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2016년 11월 15일 일본기독교회 카시와기(柏木)교회에서 <제 16회 일본기독교회와의 선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KCCJ에서는 총회장 김성제목사, 부서기 김건목사, 선교위원장 정연원목사, 김병호총간사가 참석하였고, CCJ에서는 이번 10월에 새롭게 선출된 대회의장 토미나가켄지(冨永憲司)목사, 서기 하가시게히로(芳賀繁浩)목사, 섭외위원회 위원장 핫타마키토(八田牧人)목사, 서기 사토야스마사(佐藤泰將)목사, 위원 오이시슈헤이(大石周平)목사가 참석하였다.

토미나가 의장의 개회예배 인도 후에 전회의 기록과 실무자회의 기록을 확인하고 각 교단의 현황 보고를 하였다.

양 교단에서의 발제에는 CCJ에서 핫타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개척교회의 과제를 말하면서 양 교단의 선교협약 20주년에 대하여 2017년에 가지게 되는 기념집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설립에 대한 협력에 대하여 발제하였으며, KCCJ에서는 김성제목사가 작년 11월에 개최한 제3회 마이너

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에서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 설립이 제안되어 일본 및 세계교회의 협력을 얻어 내년 4월에 개설을 향하여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양 교단은 2017년 협약체결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집회를 동년 11월 23일, 관서지방에서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집회에는 특히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들에게 발제를 하게 하는 등, 양 교회의 과제와 전망 등을 논의하였다. (보고: 김건목사)

## 제3회 상임위원회 개최 장애자 차별문제 '태도표명'을 명문화

2016년 10월 14일(금) 오사카교회에서 제3회 상임위원회가 23명의 회원, 1명의 특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岐阜)교회 교회당 건축에 따른 '전국교회 모금 허락 요청' 과 '에크로프 기금 용자에 따른 보증 요청' 의 건을 승인.
- (2) 오사카제일교회 '종교법인 규칙 변경' 의 건을 승인
- (3) 박수길목사의 재적(在籍)의 건은 이미 일본기독교단에 적이 옮겨져 있으므로 이전 재적의 관서지방회가 진출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지시하고, 총회 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현행 규칙에 수급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위원회가 빠른 처리를 하도록 하다.
- (4) 재정위원회의 건의안
  - 총회 3억 기금에서 차용한 교회로 부터 변제계획서를 받도록 하다.
  - 동경교회에 대한 선교부담금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관동지방회, 임시당회장, 총회임원이 협의하여 그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비용 100만엔을 예산화 하도록 하다.
  - 2017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승인.
  - 총회 사무국의 사무원에 관한 취업규칙을 재정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하다.
- (5) 치리위원회로 부터 '동경교회 문제에 관한 조정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은 10월 16일 치리위원회가 내릴 예정인 동경교회 5명의 장로에 대한 판결에 따라 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하되 관동지방회, 임시당회장과 상의하도록 하다.
- (6) 장애인 차별문제에 관한 <KCCJ태도표명> 을 복음신문 10월호에 실는 건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약속한 문서에, 해당 교회와 목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건을 조정하도록(이름을 밝히지 않는) 당사자를 만나 총간사와 해당 목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서로 오해가 있었던 서남지방회와 총회 임원회가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다.

## 후나바시교회 조중래목사가 소천 전 총회장, 후나바시교회를 15년간 섬겨



후나바시교회 조중래목사가 지난 11월 11일, 다발성 골수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향년 64세였다.

고 조중래목사는 1952년 한국 안동에서 출생하여 1984년 목사 안수를 받고 1991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 받아 츠크바동경교회에서 10년간 섬긴 후, 2001년 부터 현재의 후나바시교회에 부임하여 15년간 목회하였다. 히타치교회의 개척에 기초를 놓았으며 미토교회를 겸임 목회하기도 하였고 관동지방회장(2003년~2005년)과 총회장(2013년~2015년)을 역임하였다.

## 교토교회 고박명예장로가 소천 교토 신명학교 교장으로 한국어보급에 공헌



2016년 11월 15일, 교토교회 고박명예장로가 질병으로 소천하였다. (향년 73세)

고 고박장로는 1943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교토교회에서 집사 및 장로로서 그리고 신명학교 교장, 사회복지법인 향상사 이사로서도 섬겨왔다. 관서지방회 및 총회에서는 감사로 섬겼다.

## 가와사키교회 김홍식명예장로 소천 40년간 2대째 장로로서 교회 봉사



11월 17일 가와사키교회의 김홍식(金鴻植)장로가 심장질환으로 소천하였다. (향년 87세)

고 김홍식장로는 1928년 한국 경북 청송에서 출생하여 6살 때에 도입하여 1957년부터 가와사키교회에서 집사·장로로 섬겨왔다. 사회복지법인 세이큐사(靑丘社) 제2대 이사장, 관동지방회 및 총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였다.

고 김홍식장로는 부친 김성하장로에 이어 가와사키교회에서 2대 장로로 섬겼으며 형제로는 김형식목사, 김근식목사, 김명식장로, 김방식장로 등이 있다.



## <2016년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7월 18~20일) 주제강연> **변혁적 제자도로서의 선교와 예언자적 소수자의 사명**

금 주 섭 목사(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총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재일대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과 선교의 과제를 돌아보는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에 강사로 초대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세기의 선교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심각하게 왜곡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로 양분되어 서로 논쟁하고 고발하면서 선교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과거를 회고하고 기념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찾을 수 있는 에너지의 샘물이자 비전의 지계석을 찾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재일대한국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희망과 열정'입니다. 오늘 저는 WCC의 새로운 선교성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선교신학적 개념들 가운데 '성령의 선교'와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변혁적 제자도로서의 선교와 예언자적 소수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선교적 영성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핏박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19절). 오늘날에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한 문을 걸어 잠그고 신앙공동체의 보존만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같이 혐한시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인종 차별이 강화되고,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상황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두려워 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고 하시며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22절). 그러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선교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진실로 선교는 교회가 세상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선교는 우리보다 앞서 세상속에서 임재하시며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고 연합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 초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성삼위를 하나로 묶는 사랑은 온 인류와 창조 세계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선교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20:21) 희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능력과 소망과 열정을 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축하하는 한편,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고 그것을 변혁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를 전하는 산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 (요 20:22)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은 선교의 본질이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이자,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의 핵심입니다. 영성은 우리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제공하며 우리 행동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거룩한 선물이며 생명을 긍정하고 보살피는 거룩한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선교 영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혁의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혁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인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그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날 다원적인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를 위한 성령론적 패러다임을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재일대한국교회와

더불어 온 세계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참된 제자도

요한복음 20 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속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지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소수였고, 가난하였으며, 보잘 것 없는 데다 유대교 안에서는 이단 세력으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금과 은"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민중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도들은 이런 민중들을 소망이 넘쳐나는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로마제국의 속령인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은 제국안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로 다종교, 다인종,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스테반의 순교후 시리아로 피신한 제자 중 일부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그와 바울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 신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13장에 이르러 초대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펼쳐지는 세계선교의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선교를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다섯 명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13:1). 그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는 헬라계 유대인으로 사이프러스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 대표성과 권위를 가지고 초기 안디옥 교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지도자는 흑인(니게르) 시몬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니제르 출신의 흑인 노예였습니다. 이는 안디옥 사회 아니 전 로마 제국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당시 파리 목숨과도 같은 흑인 노예 출신을 그들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세상의 질서와 가치, 신분과 제도를 송두리째 변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루기아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저 멀리 변방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왔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아테네라고 불리던 구레네에서 잘 교육받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나옌은 앞선 세 지도자와는 달리 아주 부유한 배경에 출신도 화려했습니다. 권력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고위층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격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통 히브리교 유대인의 대표처럼 사울이 그 한 자리에 세워집니다.

어찌보면 잡탕같은 이 다섯명의 지도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세계화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계선교의 센타로 발전시키고, 복음으로 로마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다섯명의 리더십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섯 명의 리더십의 다양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출신과 신분, 문화와 인종, 지역적 배경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도 목회자 중심의 단일한 리더십이 아니라 여성과 신도, 선교사와 교사, 청년과 장년들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은사를 맘껏 활용할 수 있는 은사 공동체로서의 리더십 구조로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적 체제였습니다. 집단 지도력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미 바울의 위상은 베드로에 필적하고 있었는데 그는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겸손하게 등장합니다. 독점적 리더쉽은 언뜻 효율적으로 보여도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부패하게 될 때 그것을 보완할 장치가 없습니다.

셋째, 영적 지도력이 강조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리더를 선출하는 기준은 딱 두가지, 예언자적 지도력과 가르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외의 세속적 가치는 아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선교적 오리엔테이션이 확실하였습니다. 행정과 치리, 경영과 제도 그 어느 것도 선교적 의제보다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지도자는 그 자신들이 수시로 선교사로서 사역하였으며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세계 전체가 그들의 교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희생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따라 모두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순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다섯명도 해냈는데 이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일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로 송두리째 변혁하는 꿈을 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지만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 보다 더 황당한 소식이 이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형당했다는 소식보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는 동경의 재일본 한국 YMCA에서 일본내에서 증가하는 혐한시위와 인종차별을 우려하여 약 130여명의 재일대한기독교회, 한국교회, 일본교회, 세계교회 대표들이 모여 “제3차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에 관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과거 1974년, 1994년에 열린 회의의 결과는 WCC가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해 세계교회의 선교와 인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WCC가 1960년대부터 필립 포터 전 총무님의 주도로 ‘인종차별철폐 프로그램 (Programme Combat to Racism, PCR)’을 세계선교와전도위원회(Commisson for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안에 설치하고 투쟁에 나서게 되니까 세 나라의 운동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만델라가 이끄는 남아공의 반 아파르트헤이트 투쟁, 그리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끄시는 시민권운동 그리고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재일동포인권운동이 그것입니다.고 이인하 목사님께서 WCC PCR의 부의장으로 섬기셨습니다. WCC CWME는 이 3차 회의의 요청을 받고 과거 PCR 당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파트너 교회들을 접촉하였고 그들은 흔쾌히 협력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미국교회의 Black Life Matters 운동과 연대하게 되었고, WCC가 긴 잠에서 깨어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비록 소수이고 막대한 자금과 교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계교회와 선교를 위해 들어 쓰신다는 모든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지닌 창조적 소수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변혁하는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수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이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소식은 갈릴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지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과 교권, 경제적인 특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과 권력 그리고 지위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였습니다. 그 특권들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그래서 그들은 이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마저 서슴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전안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성문밖에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망명자들, 노숙자들, 실직자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라고...” 우리의 눈이 주변부의 사람들,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은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진정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전하고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추락의 낭떠러지로 밀려나고, 소수자들은 중오의 대상이 되고, 젊은이들은 양극화로 인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세계곳곳이 불안을 느끼며 전쟁과 테러, 증오와 공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반문명의 시대가 21세기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까?” “당신들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가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와 교회의 위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제자도를 잃어 버리고 돈을 숭배하는 mammon주의와 타협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증거하는 제자도의 수준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제국의 교회, mammon에 물든 교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성문밖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선교운동의 현장에서 개혁과 갱신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하며 우리는 이 생명의 영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 주변부로 부터의 선교

예수님 당시, 네 부류의 집단들이 서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의 대안이라고 경쟁하였습니다. 고상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극단적인 준수를 강조했으며 이에 어긋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 권력을 지키기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을 뒤흔드는 예수를 처형하는 데에도 서슴이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서기관들은 세상권력만 지킬 수 있다면 부활 교리와 같은 종교적 신념들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지식과 학문은 출세만을 위해 사용되었기에 그들에게 예수의 새로운 통찰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상주의자의 곧 사그라질 일장춘몽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열심당원들은 세상의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낡은 혁명이론에 따라 무장투쟁을 부추기며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익숙해지면서 인간성을 상실하였고, 진보를 가장한 수구세력이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진보 이념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혁명의 배신자로 보았습니다.

거룩한 무리 에세네파에게 세상은 희망이 없고 썩어 문드러져 파멸할 곳이었습니.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막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세상으로부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영적인 수련을 통해 성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이며 그 영적인 능력만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폐적 신앙을 키워 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편협된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안식일 연못가의 아픈 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 죽을 처지를 당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불행하다 앉으시고 오히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못배운 자를 먼저 받아들이시고 아낌 없



이 내어 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 주십니다. 그 목숨 값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빈한했던 우리들의 삶이 그분의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려 마침내 열매를 맺고 우리들을 통해 열방과 민족들을 치유케 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 모든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compassion)입니다. 타인의 안타까운 고통을 보면 주님 자신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斷腹)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측은지심의 마음이 기적을 낳게 한 동인(動因)이었습니다. 그 주님 마음 본받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 마음 펼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마음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과거 선교는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주변화된 사람들이 선교 대리자로서 자신들의 핵심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교를 변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바라보는 이 같은 역할의 반전은 강한 성경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고전 1:18-31)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선교(mission Dei)를 진전시키고 생명이 번성하도록 일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 가운데 이미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변혁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눅4:16-18). 이는 만연한 빈곤과 차별, 비인간화를 낳고 유지시키며 사람과 땅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문화와 제도들을 포함합니다.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는 권력의 역학, 글로벌 제도와 구조들, 그리고 지역적 상황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물을 위하여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교회의 선교사명으로 재구상합니다.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는 억압과 소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행하는 선교운동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중심부에 존재하는 것이 자기 권리와 자유와 개성이 긍정되고 존중받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변부에 사는 것은 정의와 존엄에서 배제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부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변부 사람들은 어떠한 세력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들의 삶의 절박성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권층 사람들은 주변적 조건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고통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세계교회가 보지 못하는 바른 교회, 참된 선교를 재일대한국교회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억압과 투쟁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언자적 소수자로서의 선교사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한 고투를 통해 적극적인 희망과 집단적 저항의 담지자(担持者),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데 필요한 인내의 담지자가 됩니다.

하나님 선교(missio Dei)를 믿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와 창조 세계 안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상황의 실제 속에서 행동하시고, 정의·평화·화해를 통하여 온 땅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속되는 해방과 화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착취하고 노예화하는 마귀들을 분별하고 가면을 벗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땅에서 마이너리티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막10:45) 낮은 자를 높이시는(눅1:46-55)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의 참된 제자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교에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음은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상의 실현이라는 약속입니다. 포용성은 인간과 창조 세계가 상호 인정하고,

또한 각자의 성스러운 가치를 상호 존중하고 유지시키는 정의로운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또한 각 사람이 공동체의 삶 속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촉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공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장애물들을 극복해 냄으로써 이러한 희망의 근거를 설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 3:27-28)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성을 해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중심주의를 삶의 방식으로 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며 하나님 통치가 인간의 실존에 스며드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적인 관계는 물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 안에서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폭력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 통치를 증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현실에서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돈과 정치 권력, 차별과 폭력의 일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죄성을 돌이켜 깊이 회개하고 부정의한 구조들을 변혁하도록 부름 받은 사명을 다시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으로 인해 교회에 대해 확실한 기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선교 활동은 모든 인간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과 성스러운 가치를 회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 58 참조).

## '남은 자들'의 사명

'남은 자들(Remnants)' 사상은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기에 발원한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를 광야에서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계약 공동체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을 일삼다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단되었고 계속된 죄악 가운데분단된 남북은 외세에 의해 강점되고 백성들은 또다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야훼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온 '남은 자들'을 떠올립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희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며,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야훼가 그들을 통해 일하시려는 '거룩한 씨앗'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이 '남은 자들', 수난의 종들이 야훼 하나님의 사명(mission), 즉 '주의 은혜의 해(희년)'를 선포하기 위해 반드시 바벨론 포로를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돌아온 자들은 더 이상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를 "진실히 의뢰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그루터기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의 사명(mission)은 '야훼신앙의 부흥'과 '사회개혁을 통한 평등공동체의 수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희년사상의 실현이라는 '남은 자들' 공동체의 역사적 이상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재일대한국교회의 선교사명을 조망하는 성서적 근거로 구약의 '남은 자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일대한국교회 교인들은 구약의 '남은 자들'처럼 온갖 고초를 감내하며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남은 자 공동체'가 '희년의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며 발전시킴으로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듯이, 수난 속에 이 땅의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해 온 여러분들을 통해 일본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뿌리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뒤에 버려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로서 이땅에 참된 교회의 수립과, 민족의 화해, 일본의 선교와 복음전도를 위해 '부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땅의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선택 받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 선교의 사도들입니다. 그 선택 받은 사도들로 여러분에게 변혁적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언자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 평화통일 포럼 개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성금 전달



왼쪽부터 부위원장 이정로목사, 가운데 위원장 강명철목사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관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지난 11월 15일-17일 에 홍콩에서 가진 한(조선)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포럼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명철목사, 부위원장이정로목사 등 4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 포럼에 참석한 중간사 김병호목사는 총회에서 매년 8월 둘째 주일에 실시하는 평화통일주일 헌금 1만달러를 수혜를 당한 지역의 복구활동 등에 사용해 달라고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전달하였다.

### <연말 연시 업무 안내>

총회 사무실은 12월 26일~30일까지 및 2017년 1월 3일·4일 휴업합니다.

## 쿠마모토 피해지 콘서트 나고야교회 "Rejoice" 멤버

나고야교회의 기관 중에 지극히 작은 <Rejoice=기쁨> 멤버 4명(플룻 小山慶佑, 첼로 이군자, 협력자 김순자, 플룻 이광세)이 90인치 스크린과 PC프로젝트 등을 차에 싣고 2016년 8월 21일~26일에 걸쳐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마시키쵸(益城町)를 중심으로 5곳에 찬양 봉사활동을 하였다. 마시키쵸 종합체육관에서 찬양 중에 쿠마모토교회 김성효목사가 응원하러 와서 함께 하기도 했다. 나고야에서 카 페리로 약 13시간 가서 신모지항(新門司港)에 도착하여 큐슈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쿠마모토교회를 방문한 후에 위문 활동을 하였다.

Rejoice는 2년 전에도 후쿠시마현 코오리아마시의 4곳에도 위문 활동을 하였다. 지금도 매월 1~2회 정도 나고야시의 데이 서비스에서 활동 중에 있다.

(보고: 이광세장로)



## 구마모토 소식

## ~지속적으로 계속지원에 협력을~

10월 28일은 오후나마치 스포츠센터 피난소의 드림카페(주3일)가 4개월 반만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참가해 봉사해 주신 분과 피난소의 주민, 그리고 가설주택에서 생활하신 분들과 함께 '위를 보고 걷자' 라는 노래를 부르며 드림카페를 폐점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설주택에 카페를 개최해 갈 것입니다만, 그 전에 11월 5일 가을축제에 드림카페가 출점하게 되었습니다. 오후나마치 스포츠센터의 가을 축제에 출점하기 위해 드림카페는 좋은 커피와 함께 어른과 아이들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줄을 잡아 당기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제비뽑기를 준비하였고, 어른들은 동북교구 '에마오'에서 보내준 코타츠와 이불세트 26개, 전기장판 9개를 준비했습니다.

스포츠센터 안에서는 카페에서 만든 개인 텀블러, 비즈세공 등이 전시되었고, 체육관 실내에는 피난소 생활의 박스 침대와 탈의실, 신문 전시 등을 했습니다. 텀빈 피난소의 흔적을 보고 다시한번 지진후 지난 반 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때에는 카페의 단골 손님들이 직접 만든 꽃다발을 건내주며 "고맙습니다. 당신들에게서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해 주신 분도 있었고, "가설주택도 나쁘지 않았어요"라

고 웃는 얼굴로 말해 주시는 분, "역시 여기 커피가 맛있어"라고 말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들 피난

소 카페를 하는 동안 피난소 주민들이 가설주택으로 이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8월부터 의뢰가 있어서 10월에는 20건이 넘는 이사를 도왔습니다. 파괴된 가옥과 장기피난지역의 출입 금지 등, 사협(社協)과 NPO 봉사활동 단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서 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오후나마치(御船町)와 마시키마치(益城町) 가설주택을 중심으로 카페를 오픈하게 됩니다. 피해자 지원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쿠마모토교회목사  
엘피스쿠마모토 센터장

金 聖 孝

###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 東京 ◆ホテル: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 ◆スペースYホール: 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ク・カヤム・舞踊) ◆韓国語講座 ◆各種子どもクラス
-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 関西 ◆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ク)

税込	平日	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 ¥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